

예수 수난(성지)주일

기도서 275 면(A해)

제1독서: 이 사 50,4-7

제2독서: 필 립 2,6-11

복 음: 마 태 27,11-54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홍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강론



보라! 이 십자가를...

김 용 태 신부

오늘은 성주간이 시작되는 주의 수난 성지주일이다. 우리는 오늘 너무나 동떨어진 듯한 두 복음을 대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과 또 예수님의 마지막 수난하시고 십자가에 못박히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박을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들어오시고 당신 아버지의 성전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즉, 우리를 위한 속죄의 댓가를 바치려 오신다. 공생활동인 얼마나 찬란한 기적들을 백성을 위해 행하셨는지 이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다윗 성왕처럼 기대하여 환호성을 외쳤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일을 버려두고 그들의 희망과는 다른 길을 택하셨다. 그 놀라운 기적들의 장본인인 예수께서 초라하게 외교인 빌라도 총독 앞에 서시고, 재판장들의 힐난을 받으시고, 무지막지한 로마군인들의 조롱을 받으신다. 성지까지를 흔들며 환호하던 그들이 변하여 "예수를 못박으라" "십자가에 못박으라"는 저주로 돌변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시에 군중과 재판 받으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혀 높이 끌고타 산상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군중은 다르지 않았다.

드디어 울사들과 대사제들과 원로들이 영터러 재판을 한다. 마치 인민재판이라도 하듯이 여론재판을 한다. 피고인에게 변호인도 선정하지 않고 재판을 한다. 재판정에 서기도 전에 이미 죄인판결을 했는지 고문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아우성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도 그들처럼 우리에게 유리하면 팔마가지를 흔들며 그분을 환영할 것이고 내 마음에, 내 욕심에 틀리면 아무리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 일지라도 외면할 뿐 아니라 저주까지 하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하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알든 모르든 간에 서로를 고발하고 거짓증거를 하며, 짓밟고 서로를 십자가에 못박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형제들 안에 못박히고 계시다. 내 십자가를 지기는 커녕 이웃에게 내 십자가까지 떠맡기고 있지 않은가? 내 지식으로 형제의 무지를, 내 지위로 형제의 비천을, 내 금력으로 형제의 가난을, 내 권력으로 형제의 약점을, 내 조직으로 형제의 외로움을

<3면에 계속>



호산나, 못 박으소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 놓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아 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앞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환성을 올렸다(마태오 21,1-11). 이 말씀을 듣노라면 어렸을 때의 일이 생각난다. 자유당 시절부터 걸핏하면 학생을 동원해서 자리를 메우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동원이란 원래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피곤하기만 한 일이다. 요즘에도 가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특별히 신문사 주최의 역전 마라톤이나 자전거 경주에서. 학생동원을 억제하라는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있었다는데도 그런 일이 눈에 띈다. 하기가 내고장을 지나가는 선수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다정한 인사라고도 볼 수 있으나, 하필이면 왜...

그토록 예수께 환호를 보내던 유대인들은 며칠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라고 악을 써댄다. (마태오 27,15-23) 이 말씀을 듣노라면 지난날의 우리나라 정치사가 생각난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알팍한 인심, 빼없는 연체동물이 생각난다. 이모씨가 아니면, 또 박모씨가 아니면 금방이라도 암흑세계가 울듯이 이마에 핏대를 울리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갔는가. 놀랍게도 그들 중의 일부는 쉽게 변신하는 해바라기가 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과거를 목해대기에 바쁘다. 그래도 극히 적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며 살아간다.

이제 사순절도 마지막 주간에 이르렀다. 다른 때와는 다른 200주년을 맞는 오늘, 이 땅의 빛 구실은 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자. 변덕스러운 신앙, 수다스러운 신앙으로 그저 요란만을 떨고 있는지는 않는지? 이 기회에, 남에게는 너그러움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기준으로 살자. "호산나" 편인가, 아니면 "호산나"-"못박으소서" 쪽인가?

숲 정 이 산책



□전례 해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②

성 주 간

교황은 이탈리아인이라는 오랜 전통을 깨고 이탈리아인이 아닌 이방인이 교황에 선출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그것도 미국인이 아니고 프랑스인도 아닌 공산국의 추기경이 교황이 된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523년 이래 455년만에 이탈리아 사람이 아닌 첫 교황이며, 안경없이 메시지를 낭독할 수 있었던 첫 교황이며, 전자 손목시계를 차고 있는 첫 교황이다. 뿐만 아니라 교황 취임시에 공산국가 원수(폴란드 수상)를 참석시킨 첫 교황인 그는 오늘의 인류에게 평화의 사도로서 온 인류의 정신적 지주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취임 후 완전한 신앙의 자유, 즉 모든 나라에서 종교교육과 종교활동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산국가 출신 교황답게 공산국가들과 가톨릭 교회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진력하고 있다.

그의 통치이념은 교회 외부 문제에는 혁신적이나 교회 내부 문제에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세계 평화, 군비 축소, 정의, 세계 경제 질서, 빈곤, 기아, 개발도상국가의 여러가지 문제,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 및 난민 문제들, 그리고 세계를 분열시키는 이데올로기 등 현대 세계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해결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으로 선출된 후 지금까지 계획있을 때마다 전 세계를 여행하였다. 그가 방문한 나라는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폴란드, 아일랜드, 영국, 미국, 서독, 불란서, 아프리카의 6개국 및 필리핀, 일본 등 30여 국가나 된다. 또한 그 여행의 거리는 지구의 6바퀴를 돌 수 있는 23만 5천 킬로미터에 이른다. 교황은 복음 전파자로서, 평화의 사도로서 필요하다면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여행하겠다고 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맞는 우리나라를 가톨릭 교회의 최고 목자로서 방문하신다. 우리 모두는 참된 영적 준비로써 그분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성주간은 성지주일부터 부활 전까지의 7일간을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날 등을 전례상 재현하고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1년 중 가장 뜻깊은 한 주간이다.

성주간이 시작되는 성지주일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다. 당시의 군중들이 걸 옷을 길 위에 깔고, 팻마가지와 올리브 나무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날 성당에서는 성지축성 예절을 하며, 축성된 성지가지는 각자 1년동안 잘 보관하였다가 다음 해 '재의 수요일'에 태워 재의 예절로 사용함으로써 사순절이 시작된다.

삼십일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성목요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성금요일, 고성소에 내리신 성토요일의 3일을 뜻한다.

성목요일 오전 주교좌 성당(전주 중앙성당)에서는 주교님과 사제단이 함께 '성유축성 미사'를 한다. 이 날 저녁 각 본당마다 최후의 만찬 미사를 지내고 성체를 옮기며 신자들은 밤을 새워 조배한다.

성금요일은 예수님의 수난과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기념하는 날로 성당에서는 오후 3시경 미사없이 주의 수난을 기념하는 예식이 거행되며 '십자가의 길'을 바친다. 이 날 신자들은 단식과 금욕을 한다.

성토요일은 망부활, 부활성야라고도 하며 이 밤은 특별히 주님을 기억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밤이다. 이 날의 전례는 빛의 예식, 말씀의 전례, 성수축성과 성세 서원 갱신, 성찬의 전례 순으로 장엄하게 이어진다.

□성주간 묵상해야 할 복음

다음의 복음에는 성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말씀들, 예루살렘의 여러가지 사건들이 잘 전해지고 있다. 찾아 읽어보고 묵상한다면 뜻깊은 성주간이 될 것이다.

- 마태오 21장~28장
- 마르코 11장~16장
- 루 가 19장~24장
- 요 한 12장~21장

□새로 나온 책

그대들은 미래요
그대들은 내 희망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젊은이들에게 하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씀으로 교황성하께서는 교회와 세계의 미래를 결정할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도전장을 띄우고 계신다.

가격 2,800원 성바오로 출판사

교황 성하께서 무사히 한국 방문을 마치시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9일 기도에 우리 모두 참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주 주보에 게재됩니다.)

신속배달 설비시설
한국 가스 공사

☎ 3-1457·72-0612

김 성 두(토마스)

이 미 자(안젤라)

미  성

全州 코아백화점 1층
미성핸드백 대리점

※취급품목
핸드백·벨트·지갑·기타
피혁소품

☎ 교환 72-0551-5
72-0561-5
김 혜 겹(글라라)

성심연와공업사

변색 벽돌·적벽돌(제조 판매)

공장전화 : 황산 174번
본사 : 이리시 창인동
전주사무실 : ☎ 2-0385

이리시 창인동 1가 259

☎ 2994·29799

대표 : 차계철(베드로)

마 기 환 안 과

원장 : 전문의 마 기 환

장소 : 팔달로변 불새다방
2층

전 화 75-2203

한 남회(비리시타)

□ 사순절 이웃돕기 특별헌금의 날

오늘은 사순절 이웃돕기 특별헌금의 날이다. 4월 13일 단식의 몫과 사순절 희생의 몫을 나누어 드린 봉투에 넣어 봉헌하면 교구 사목국 사회복지 사목부로 보내어져 교구 내 사회복지 시설지원과 사회복지 활동에 쓰여지게 된다. '가난하고 약한 이들과 함께' 사랑으로 가진 바를 나누는 사순절이 되게 하자.

□ 4월 성소 관심자 모임

교구에서는 성소 관심자들에게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소를 굳혀가도록 다음과 같이 월 교육을 마련하고, 피정에 참가했던 학생과 관심있는 학생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

일 시 : 4월 29일(일) 오후 2시~4시 장 소 : 가톨릭 센터 3층

대 상 : 중·고·대학생 및 일반 성소 관심자(남자)

주 제 : 크리스찬의 이상 주 관 : 교육국

지참물 : 성서, 공동체 성가집, 필기구

□ 군인들에게 성서 기증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느 신자의 정성으로 군인들에게 성서가 전달되었다.

교구 군중후원회(회장 양 규철)가 지난 2일 군중후원회 월례미사때 밝힌 바에 따르면 익명의 신자 한분이 군인들을 위하여 신구약 합본성서 20권, 성가집 20권, 기도서 20권을 기탁하였으며 후원회에서는 이를 전방에서 사목하는 교구 군중 신부님들께 전달하기로 뜻을 모아 전방에서 고생하는 군인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군중후원사업에 협력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 교회 간행물 구독 선물카드 이용 안내

교구 홍보국에서는 교회 간행물-가톨릭 신문, 경향잡지, 생활성서-의 보급을 위하여 간행물 구독 선물 카드를 제작하였다. 이 카드는 영세자들을 위해서나 교우들간에 편리하게 선물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중 어느 시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용방법: ①선물용 카드를 본당 사무실, 바오로 서원, 교구청 홍보국에서 얻는다.

②봉투 안에 들어있는 우편 대체용지를 이용하여 해당 금액을 송금하고 그 내역을 카드에 기입한다. (직접 전달도 가함)

③카드를 선물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달한다.

<1년 강론에서 계속> 만들고 있지 않은가? 내 편리, 내 쾌락을 위해 형제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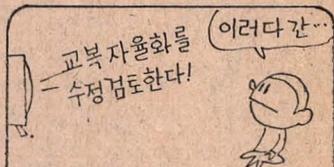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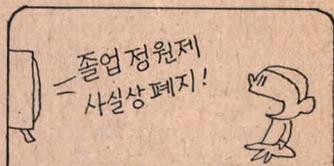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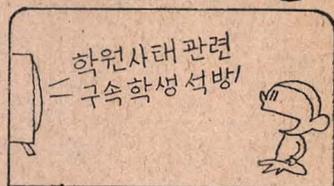
수고, 수난하신 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고통 당하고 제심을 깊이 알자!

예수님은 시기와 질투, 음모와 억울한 재판과 누명, 조롱 앞에 변명도 대꾸도 안하신다. 그저 묵묵히 십자가에 못박히신다. 그저 인간의 가면을 벗기고 진실을 추구하며 성부와 형제들을 투철히 사랑하시려 할 뿐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최후의 장면을 지켜보면 로마군인 백부장은 말한다. "이 사람(예수)이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이 고백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비참히 죽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나는 십자가에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지금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죽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 하겠니?" 우리 자신에게서 스스로 응답하시길 오늘도 예수님은 바라시고 계시는데...

지금 나는? 아멘.

(노송동 주임 신부)

요심이(558) 김병오



간호원 구함

1. 자격: ①20~21세 미혼 여성, 간호보조원 자격증 소지자, ②출퇴근 가능자
 2. 대우: ①유경험자 우대, ②가급적 교우 환영
- ※ 이력서, 자격증사본 지참 본인 직접 내원 바람

全州 명동피부과의원
문의전화 3-1719

감 사 합 니 다

주님의 은총과 교우 여러분의 성원으로 명동피부과의원이 개원한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진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그 보답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더욱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984. 4. 16

全州 명동피부과의원

최 창 기(루까)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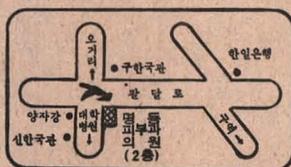
全州 명동피부과의원

진료과목 : 피부과 비뇨기과

원 장 최 창 기
전문의 최 창 기

전주시 서노송동 605-22
(구역전오거리)
팔달로동면 2층

③ 1719,
⑦ 0616 (원장실)



(4) 순 정 이



- 4월 꼬미씨움 회의: 15일 오후 2시, 장소-전등성당, 대상-자 꾸리아간부 및 직속Pr 간부
 - 장애자(하나회) 모임: 15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 센터
 - 주요교인 성주간 예절 집전: 성지주일-남원, 성목요일(만찬미사)-성체회 본원, 성금요일-상지원, 성토요일-오동동, 부활대축일-중앙
 - 성유 축성미사: 19일 오전 11시, 장소-중앙성당
 - 중·고생 산간학교 준비 연수: 29일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가톨릭 센터
대상-연합회 임원, 각 지구 및 본당 학생대표 1인, 참가비-1천원
 - 제3기 베델서서 연수자 모집(본편): 개강 예정-5월 중순, 접수처-교육국(전화로도 가능)
- 축! 영명:** 성 안셀모(21일)-김 윤섭 신부님 **안 헬론** 신부 군중 입대(14일): 기도 중에 기억합니다

제 1 지구 각 본당 소식①

(중앙)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사도 회장 김인협
전화 ①711~3

- 성주간 행사: 성목요일-성유축성미사(오전 11시)·만찬미사(8시), 성금요일-저녁 8시 고상친구예절, 성토요일-저녁 8시 부활전야미사
※금요일 어머니미사 시간에 성로친공 있습니다.
 - 재판공 일정: 17~18일 오전 10~12시, 오후 7~9시
 - 서울 시성식 참석: 티켓 사무실, 1대 6천원, 500명
 - 사순절 영화(김대건) 상영: 오늘 저녁미사후, 1천원
 - 인성회 헌금: 오늘 벽돌봉헌: 11,114장
 - 성모회: 공식미사 후 강당
 - 축! 영세: 부활반-21일 저녁미사 중(8시) 첫영성체-부활주일 공식미사 중(10시30분)
 - 부활꽃 봉헌하실 분: 사무실이나·수녀님께
 - 부활주일 미사안내: 6시·9시·공식(10시30분) 미사 저녁(7시)미사
- 지난주 봉헌금:** 1,004,574원 **교무금:** 1,404,100원
감사헌금: 최세서리아(7천원)·허진명(1만원)·강성용(1만5천원)

(노송동)

신부 ①0969 주임 신부 김용태
수·사 ②7032 보좌 신부 나춘재
사도 회장 이홍재

- ※ 새성전 신축기금 신입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정성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 판공성사 안내: 본당 공동참회 예절-16일 오후 7시~9시까지, 17일-오전 10시30분 이후APT, 16일 오전 10시 우아APT
 - 성주간(성삼일) 예절안내: 19~21일까지
①주의 만찬미사-19일 오후 7시30분, ②예수 수난 예절-오후 3시 십자가의 길, 단식과 금욕하여 특별 헌금 봉헌합니다, ③부활영성체-21일 오후 3시, ④부활 전야미사-21일 오후 8시
 - 5개공소 합동미사: 22일 오후 3시, 신원리공소에서

(덕진)

신부(3)2182 주임 신부 김봉희
전화 수녀(72)1222 보좌 신부 정양현
사무(72)6259 사도 회장 양상열

- 성주간 15~21일 행사안내: 17~18일 병자성사, 성목요일-주의 만찬미사(8시) 무덤제대 성체조배, 20일 밤까지 전신자 참여 경배 바랍, 성금요일-십자가의 길(치명자산에서 2시에 한벽루 집결 출발), 수난예절(십자가 경배) 저녁 8시, 성토요일-부활성야·빛의예식·영성체·대미사(밤 9시부터 시작, 초지참 바람)
 - 부활대축일(22일) 행사: 마음의 선물 주고받으며 다 같이 사랑을 나눕시다(100원 선물 준비하여 친교의 행사에) 새벽미사 없음
 - 부활영성체 특별교리: 16~18일 저녁 7시30분(합동)
 - 오늘의 모임: 성모회(10시), 반석회(12시)
 - M.E. 사도직 프로그램(참부모가 되는 길): 28일 오후 2시~10시(참가비 5천원, 자녀를 둔 부부에 한함)
 - 선교분과위원회: 18일 저녁미사 후
 - 금주 본당성소: 카리파스회·반석회-오후 3시
- 지난주 봉헌금:** 521,405원 **교무금:** 185,000원
동산교회 봉헌금: 93,000원

(복자)

전화 ①5233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김성원

- ※ **오늘은 성지주일:** (13일 단식의 뜻을 봉투에 봉헌)
- 영성체: 21일 오후 3시, 대부모와 같이 준비 바람
 - 축! 부활: 22일
 - 성주간: 19~21일 저녁 7시30분, 전신자 참석 바람

- 성주간 전례에 대해서는 유인물 참조 바랍니다
- 부활성가 집중연습: 많은 참석 바랍니다
금주 수난복음: +신부님 ○조성호 ○김성원
차주전례: 해설-황완금, 독서-①김성원 ②양규철
- 지난주 봉헌금:** 113,390원 **교무금:** 549,310원

(서학동)

신부 ①8307번 주임 신부 김동준
수녀 ②276번 사도 회장 김낙균

- 성삼일 전례에 적극 참여합니다(일정 별지참조)
 - 판공: 마음리-16일, 광곡리-17일 오후 3시, 본당-18일 저녁 7시30분(손님신부님 성사증)
 - 모임: 성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 감사합니다: 본당 신학생 직수여석에 도움주신 여러분, 부활제대꽃 기증-김진국·박순영·박순덕(각1만)
 - 차주전례: 독서-①김낙균 ②김광수
- 지난주 봉헌금:** 338,670원 **교무금:** 395,000원

(숲정이)

전화 ①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②9567 사도 회장 김수겸

- 영성체 하교: 17일 오후 8시
 - 성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 예비자 모집: 29일, 예비자교리를 새로 시작함
 - 성주간 행사: 성목요일-19일 19:30 주의 만찬미사(세족례 있음), 성체조배 8:20~9:10 일반, 9:10~10:00 제단대, 10:00~10:50 사도회, 구역정무회장, 레지오회원, 성금요일-20일 19:30 수난전례(수난복음 있음), 성토요일-21일 14:00 성인 영성체, 15:00 유아영성체, 19:30 부활전야 미사(독서 5개, 촛불예식 있음)
- ※ **오늘 특별헌금 있음(인성회)**
- 차주전례: 해설-이기호, 독서-기도-신종원·이정수
- 지난주 봉헌금:** 187,576원 **교무금:** 473,100원

(전동)

신부 ①6208 주임 신부 박치삼
전화 사무 ②3222 보좌 신부 김찬길
수녀 ③8347 사도 회장 김병오

- 성화회: 공식미사 후
 - 꼬미씨움: 오늘 오후 2시
 - 판공일정 및 시간: 16일-전동·중앙동·다가동(오전 10~12시·오후 2~6시), 17일-풍남동·남노동(오전 10~12시·오후 2~6시), 18일-동원산동·서원산동·기타동(공무원·기타·학생)(오전 10~12시·오후 2~6시·7~10시), 19일-동교동·서교동·경원동(오전 10~12시·오후 2~6시)
 - 성주간 행사: 성목요일-예절 오후 8시, 성금요일-오후 3시 십자가의 길·오후 8시 예절, 성토요일-오후 8시 영성체·오후 11시 성야미사
 - 영화상영: 16일 저녁미사 후, 김대건신부
 - 다음주 전례담당(※ 22일-아침미사 없음)
공식미사: 해설-이주철, 독서-①안득수 ②고수창
저녁미사: 해설-김운주, 독서-①이훈 ②최원일
- 지난주 봉헌금:** 907,920원 **교무금:** 668,000원

(호자동)

신부 75-3841 주임신부 박중신
수녀 2-4804 사도회장 황희상
사무 2-0915

- 성주간 예절: 저녁 8시, 목-세족례, 금-수난예절, 토-망예수부활
 - 영성체: 오늘 10시
 - 판공성사: 오늘-초청신부, 아침 9시~저녁 9시까지
 - 교황 방한 기념품 판매: 9시·10시30분 미사후
 - 수요성서⑦: 창세기 41~50장
 - 축! 결혼: 신랑-이정두, 신부-최정숙
22일 12시 호자동성당
 - 차주전례: 독서-①송원주 ②안정희
- 지난주 봉헌금:** 316,790원 **교무금:** 262,000원

숲정이 천주교회

전화 3-7366

3월 7일은 재의 수요일입니다. 사람은 흠에서 왔으니 흠으로 돌아 갈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마에 재를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40일을 맞이하고 부활을 준비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는 단식과 금육의 재를 지키고, 매주 금요일 마다 금육의 재를 지킵니다. 단식재는 만 21세부터 만 60세까지 지키고 금육재는 만 14세부터 죽을때까지 지킵니다.

그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에는 십자가의 길을 바치면서 그리스도의 수난의 길을 자주 묵상하면서 희생과 봉사 생활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속죄의 기간입니다. 특히 봄 판공 성사를 통하여 은총을 더 풍성히 얻는 시기입니다.

참고는 필기 시험으로 대신하며 아래와 같이 봄 판공 일정을 알리오니 해당된 일시에 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봄 판공 성사 일정 (시간 14:00~18:00)

- 4월 4일<수>—서신 1·2·3구역, 어은골
- 4월 5일<목>—서신 4·5구역, 금암 1·2구역
- 4월 6일<금>—진북 1·2·3·4구역
- 4월 7일<토>—중·고등학생
- 4월 8일<일>—국민학생
- 4월 11일<수>—진북 2동 5·6·7·8구역
- 4월 12일<목>—진북 2동 9·10구역 동양아파트
- 4월 13일<금>—진북 1동, 태평동 기타 (직장인은 매 미사 전후에 볼 수 있음)

알림 사항

- ※ M.B.W (공동체) 묵상회나 M.E(부부) 교육에 참가한 분은 참고를 면제합니다. 절취선을 잘라 신청하시기바람.
- ※ 성서 시험에서 성적이 우수한 분에게는 시상이 있음.
- ※ 성서 시험은 성서를 보고 가족과 함께 풀 수 있음.
- ※ 교무금 미 신입하신 분은 84년 교무금 신입을 하시기 바람

M.B.W묵상회 : 1984년 3월 12일~3월 17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10시까지
M.E교육(참부모가 되는길) : 1984년 3월 11일<일요일> 오전 11시~17시까지,
참가비 : 각 1,500원

1984년 3월 4일

숲정이 천주교회

주임신부 김 중 길

